

전북여성백일장 수상

산문분야에 김진옥씨 선정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생각에 글 써"

제47회 전북여성백일장 대회 산문분야에서 김진옥씨의 '행복한 고향길'이 장원을 받았다. <본보 11월 7일자 12면>

지난 10월 31일 도내 거주 여성(결혼 이민 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백일장은 올해로 47회째이다.

전북여성백일장은 현장에서 선정된 글제(시제)에 따라 운문, 산문 2개 부문에서 한 부문을 선택해 글을 짓는 순수 문예 백일장으로 1979년부터 시작돼 47년째 매년 도내 여성 문인들의 등용문이 돼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이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들의 모임인 '글벗' 회원들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현장 글제(시제) 발표와 함께 시작했다. '고향길', '국화', '깃발', '호수' 4가지 글제(시제)로 도내 130여명의 참가자들은 평소 애 가지고 닦은 글 솜씨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장원을 받은 김진옥씨는 수상 소감에서 "시골에서 태어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산문분야 장원을 받은 김진옥씨.

당선작 산문 장원 '행복한 고향길'

김진옥

기후 변화가 예사롭지 않은 금년이다. 태풍 이름이 내 입에서조차 오르내리 다니 링링, 타파, 미탁, 오늘따라 다급한 관리실 안 전방송에 창문이 먼저 흔들렸는지 요란하다. 창문을 닫으려하니 한참 이래 텃밭에서 허리 굽은 할머니가 비설거지 하시는지 분주하다.

아 어머니!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 동문서주 하시는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어머니는 시집오기 전 산골에 살았지만 논밭일을 모르고 살았고 하셨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길쌈질 하고, 수놓으며 바느질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셨다. 시집 와서도 어머니는 그 일을 계속 하었다. 하나 사람 사는 일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싫이다.

일곱남매 울망졸망한 것들을 보고 어찌 방안에 앉아 하는 일만 할수 있는가? 아문 손 끝은 차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 논밭일까지 척척 해 다니 어머니 손은 언제 부턴가 집안의 가보와 다름없었다.

내 손이 아플다고 고향 친구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손끝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비근한 예로 어머니와 같이 고사리 끊으려 가면 손이 어찌나 빠른지... 고추 고향에 고추를 따러 들어가도 어머니는 금세 저만치 앞서가 계신다.

우리 얼마 손끝아무지다는 말은 어려서 할아버지께 너무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게 뭘 말인지를 모르고 들었다는 말이 맞을게다. 어머니 솜씨 자랑 좀 해보고 싶다. 명절에 어른들께 세배하는 중에도 한 손엔 유가를 입에 넣다 혼란적도 있으니 그 맛을 어찌 잊으리? 그 이유는 어머니의 손맛이다. 특히 누룩으로 빚은 동동주는 우리 부락 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잔치에 쓰일 술까지 부박을 받을 정도였으니 더 말해 뭐하랴 모든 음식이 그렇듯 요즈음 양념을 개량하고 시간까지 재가며 조리하여도 각기 다른 맛이 나는데 음식이라.

술을 빚는 것도 예와는 아니어서 우리 어머니의 술 빚는 솜씨는

이미 정평이 나있었다. 그 집의 장맛은 내릴이라 했던가? 상할머니와 할머니의 장맛은 어머니까지 고이 이어져 동네 애경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쓰였다.

어머니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 솜씨 중에 백미는 바느질이다. 밥상포는 자투리천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도형 모양에 조각을 이어 한뼘한뼘 수를 놓 듯 섬세함이 묻어나 지금도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밥상포는 오래 그렇게 생겼거나 했는데 그게 서민들만의 애환이 서린 조각보라는 이름으로 나름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는 어른이 돼서야 알았다.

어머니는 머리 벗겨지는 날엔 삼베옷이 안성맞춤이라고 하셨다. 세탁방법도 독특하다. 예벌 빨래한 다음 다시 쌀겨와 들물에 이를 정도 담가 놓아야 한다. 쌀겨에서 우리나라는 노랑물이 삼베옷에 물들게 하기 위함이다. 은근한 노랑물이 얼마나 곱던지 어릴 때 보았지만 지금도 눈에 선하다 풀을 뺏듯하게 해서 잘 말린 다음 반질반질하게 다려 입으면 살에 달라붙지도 않고 더위도 식혀주고 때도 덜한다.

소가죽을 뚫는 모기침이라도 삼베옷은 뚫지 못하니 무더위에 이만한 옷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쯤되면 조상의 지혜에 탄복할 따름이다. 어머니의 적삼 만드는 재단 솜씨는 미수가 가까워져도 여전히 전한다. 어긋재는 내게 당시 적삼 첫수를 불러 주셨다.

목둘레는 한뼘, 등 길이는 한자반, 소매는 두치,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서 옷이 되려나 싶었는데, 어쩔 일맞게도 어머니 품에 딱 맞는 옷이 만들어졌다.

바느질 할 때마다 어머니는 말씀 하신다. '바늘은 가까이 대고 가위는 멀리 대라' 내가 어찌 어머니 솜씨를 전수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따르릉 하는 소리에 '아 내가 몸뚱이 꼬여 안디 너 시간 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어오는 행복한 고향길로 가는 듯 하다.

사랑의 연탄으로 여성기업의 따뜻한 손길 전해

전주지역 여성기업인들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한춘자) 회원 20여명은 7일 노송동 일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전주연탄은행에 1,250장의 연탄을 후원하고, 노송동에 거주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김윤삼 기자

만경강사랑지킴이, 신천습지 일대 환경정화

만경강 사랑지킴이가 만경강 신천습지 일대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만경강 사랑지킴이는 지난 6일 삼례로터리 클럽 회원들과 함께 만경강 신천습지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였다. 총 30여명 회원들이 쓰레기 수거에 나섰고, 회원들은 정기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만경강은 탐방객들과 낚시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도 증가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금암1동, '진미집 금암동 직영점'에 착한가게 현관 전달식 가져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주민센터(동장 이재수)는 7일 관내에 위치한 '진미집 금암동 직영점(대표 김종훈)'을 방문하여 '착한가게' 현관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 기부캠페인은 금암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일정액을 기부하여 나눔 활동에 동참한 가게에 '착한가게' 현관을 제작·전달한다. 기부된 성금은 연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금암1동에는 진미집 외에도 금암면옥, 한가람, 김판희전주우족탕, 성전사,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커피데이 등 착한가게 10곳, 착한가게 정 1곳, 1인1계좌 29명이 기부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모인 성금은 금암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김윤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9년 11월 25일 (통독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90910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사노승중)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388-8874	남원지사 632-3938	고창지사 533-6939	
삼천지사 010-2333-40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완산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94	
홍지지사 010-9645-9335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985	장흥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92-6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관촌면행복보장협의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사업' 실시

임실군 관촌면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순남·배경한)는 7일 관촌면 병안마을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가졌으며, 관촌면 복지허브화 천사모에 가입한 주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됐다. 협의체는 노인, 장애인, 청장년 1인가구 등 사정상 김장김치를 담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정에까지 직접 전달하며 격려했다. 전달받은 대상자들이 동절기 내 반찬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남 위원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버무린 김치가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밥상에 올라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한다며 오늘의 고단함은 보람으로 보상받고도 남는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